

융합형 메이커 스페이스 역할 특특

전북중기청, 창업 저변 확대·메이커 문화 확산 구축 시제품제작소 새단장 맞이 메이커 페스티벌 열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지방중기청)은 전북시제품제작소의 새단장을 맞아 13일 전북시제품제작소에서 관련기관(전북중기청, 전라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합동으로 '2018년 전북 메이커 페스티벌'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 행사에서는 전북 메이커스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메이커 제품에 대한 시상과 전시가 이뤄졌으며 전북 메이커 붐업을 위한 선두 메이커의 초청강연과 체험을 통해 메이커 활동을 접할 수 있는 셀프제작 교육도 진행됐다.

올해로 만 3년이 된 전북시제품제작소는 중기부에서 구축한 5개의 시제품제작소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와 지

방중기청이 공동 추진한 곳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제조업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시제품제작 2,000여건과 셀프제작교육 2,700여건을 지원해 왔으며, 메이커 활동과 소규모 창업이 연결되는 융합형 메이커 스페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창업 인프라가 열악한 우리 지역이 전북시제품제작소를 통해 창업저변이 확대되고 메이커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내 메이커스페이스 3곳(전주, 익산, 남원)과 도내 21개 시제품 지원기관이 굳건한 스텝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자의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전북시제품제작소의 새단장을 맞아 13일 전북시제품제작소에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2018년 전북 메이커 페스티벌'을 열었다.

한편, 메이커 교육 체험 프로그램은 13일부터 1주일간 전북시제품제작소에서 진행되며 장비 이용에 대한 사

항은 전북시제품제작소(063-714-262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믿고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시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선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를 향상,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2018년 원산지 표시 우수 전통시장' 평가에서 도내 전통시장 3곳을 우수 시장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한 자체 평가에서 영예의 최우수상 군산 신영시장, 우수상 익산 중앙시장, 남원 용남시장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군산 신영시장 율봉회 상인회장은 "군산 신영시장의 철저한 원산지 표시로 시장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선정은 도내 전통시장 29개소를 대상, 시장의

원산지표시 상태를 점검하는 현장평가와 원산지표시 캠페인 활동실적 등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전북농관원에서는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를 향상을 위해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시장상인회와 합동캠페인, 업체별 맞춤형 1:1 지도 및 원산지 표시관, 풋말 지원을 통해 입점업체가 스스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유도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에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시장은 풋말과 표시판을 활용, 대부분의 입점업체들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면 전화(1588-8112)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 특례보증 30여억원 지원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전라도와 협약을 통해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한 달만에 30여억원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선' 인근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소매,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이다.

또한, 전라도 관광 100선 분야별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북은 37개소에 해당된다.

특히, 대출금 이자는 전북도가 4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고 도내 자영업자는 1% 초반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업체당 최고 50백여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기간은 8년(거치기한 1년)이다.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은 "최저임금,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운 도내 자영업자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 받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전북경제가 더욱 안전하게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도 소진시까지 대출은 지속되며 대출 신청은 농협은행 각 영업점, 전북신보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12일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예비대학생을 위한 금융기초 상식' 금융교육을 했다.

'꼭 알아야 하는 금융사기예방법'

농협은행, 예비대학생 위한 금융기초 상식 교육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참석해 격려·기념품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12일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전주 완산여고 3학년 학생 대상, '예비대학생을 위한 금융기초 상식' 금융교육을 했다.

이번 행사는 김제 금산고교와 전주 생명고교에 이어 세 번째 고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이며 특히 윤석현 금융감독원

장도 참석하여 격려 해줬다. 금융교육 내용은 전반적인 금융 상식, 신용관리 등이며 예비대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에, 학생들은 1일 은행원이 되어 통장도 만들어 보고 고객이 되어 금융상품 가입 신청서도 작성해 보는 체험형 교육을 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금융교육을 잘 받고 습득해 미래에 훌륭한 금융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기념품을 전달했다.

한편, 청소년금융교육센터의 이용을 희망하는 학교는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마케팅추진단(063-240-3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공명선거 지원하고 사고 예방 특별점검한다

농협전북검사국, 농·축협 46여개소 대상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대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유재도)는 지난 1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2019년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연말연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내 선거 대상 농·축협 46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과열·혼탁선거를 사전

에 예방하고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명선거 추진태세 점검, 취약시기 사고예방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태호 전북검사국 국장은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연말연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내년 1~2월 중에 추가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서민금융지원 공로 인정 금융감독원표창 수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3일 소비자보호 부문 서민금융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서민, 중소기업지원, 금융사기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표창을 했다. 서민금융지원 부문에 대한 수상은 새희망홀씨대출, 중금리대출,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 취급실적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을 선정, 시상했다.

전북은행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중서민을 위한 포용적금융 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금융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으며 금번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부문 평가에서도 표창을 수상했다. /김영태 기자



한편, 임용택 전북은행 은행장은 "중서민을 위한 서민자금대출과 저신용자를 위한 긴급자금을 적극 지원하여 서민금융지원, 포용적금융을 통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